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국민연금공단,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기준 개선 사업장 가입 확대... 7월부터 시행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

업장가입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판단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판단기준 개선으로 사업장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 침수안전 산업 참여기업 · 기관 워크숍

전북테크노파크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 침수안전산업 참여기업 및 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자치도의 침수안전 진흥시설 운영기관과 장비 연계 R&D 참여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침수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건설기계연구원(KOCE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R&D지원사업 참여기업 6개사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북 침수안전산업 개요 및 재난안전진흥사업 조성사업 추진현황 발표(전북TP, KETI, KOCEIT, KCL), △2024~2025년 침수안전산업 R&D 참여기업의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한성산기, (주)골든포우, (주)메이저인웍스), △2025~2026년 추진기업의 발표(동아안전스틸, (주)비야, (주)신호테크), △침수안전진흥시설 구축 장비 연계방안 및 애로사항 공유, △침수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진행되었다.

전기안전공사,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 취득

최고경영진 참여 · 고충처리제도 실효성 등 인정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전북 완주군 본사 창조실에서 인권 실사 전문 기관인 한국ESG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속가능인권경영’은 인권경영 체계를 갖춘 국내 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다. 평가는 △인권경영 정책과 거버넌스 △인권경영 내재화 △고충처리제도 △인권경영 이행성과 △대응 및 공개에 관한 평가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공사는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인권 존중 책임의 이행 △고충처리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 강화 △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내부 지침의 강화와 ‘찾아가는 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을 통한 인권경영 확산 활동이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사람 존중’을 인권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권 진화



적 경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그간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권 존중 문화 확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올여름, 적기 방제로 벼 병해 대비

농진청, 6~7월 장마기간 습한 날 이어지면 병해 발생 우려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잦은 비와 국지적 폭우로 발생하는 각종 벼 병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느 해보다 철저한 예방관찰(예찰)과 사전 방제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장마로 습한 날이 지속되면 발생하기 쉬운 주요 벼 병해를 조기진단하고 적기 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모내기 후 비가 자주 내리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의 병해가 잘 발생한다. 도열병의 발생 최적 조건은 20~25도, 3일 이상 지속된 강우, 습도 90% 이상, 낮은 일조량으로 지속되는 비와 흐린 날씨로 기온이 낮아지고 습한 날이 계속되면 잘 발생한다. 벼 전체 생육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꾸준한 현장 관찰 예방적 방제가 중요하다. 특히 질소비료를 많이 준 논이나 논 주변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역과 지대별 표준 시비량을 참고해 적정량의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해 건전한 벼에 병원균이 옮겨가지 못하게 한다. 트리아이클라졸, 아족시스트로빈 계열 등의 약제를 뿌려 초기에 방제한다. /오상근 기자

잎집무늬마름병의 발생 최적 조건은 30~32도, 습도 90% 이상으로 질소비료를 많이 주거나 벼를 뻗뻗하게 심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질 때 잘 발생한다. 병을 예방하려면 적정량의 비료를 뿌려 벼 포기가 벌어지거나 늘어진 잎들이 없게 하고, 벼 포기 내부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관리한다. 트리아이클라졸, 헥사코나졸 계열 등의 약제로 방제한다. 흰잎마름병은 생육 초기인 7월 초·중순부터 나타나며 장마와 태풍 침수로 병이 퍼진다. 발생 초기에는 잎끝이 하얗게 마르고 심해지면 식물체가 말라 죽는다. 병이 심하게 발생하면 광합성이 원활하지 않아 쌀 품질과 수확량이 떨어진다. 병원균이 물이나 상처를 통해 침입해 전염되므로 물길을 정비해 재배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일단 병이 발생하면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상습 발생지에는 저항성 품종을 심고 아족시스트로빈, 페리핀트 가스카비인신 계열 등의 약제로 예방 위주 방제를 한다.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병 발생 초기부터 방제에 힘써야 한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사용한다. /오상근 기자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 ‘선녀벌레집게벌’로 방제하세요”

농진청, 12일 전남 장성서 미국선녀벌레 천적 ‘선녀벌레집게벌’ 방제 효과 현장 평가회 열어

농촌진흥청은 12일 전남 장성에 있는 감 재배 농가에서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의 천적 ‘선녀벌레집게벌’ 활용 방제 효과를 소개하는 현장 평가회를 연다. 현장 평가회가 열리는 감 재배 농가는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협업 농장으로 선정돼 선녀벌레집게벌 방제 효과를 현장 실증 중이다. 이날 농업인과 관련 연구자 등 참석자들은 미국선녀벌레와 천적인 선녀벌레집게벌 활용 기술과 현장 실증 연구 결과를 공유한 후 농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미국선녀벌레는 2006년 경남 김해 단감 농가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해 감, 복숭아, 블루베리, 키위 등 300여 종 이상의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26개 시군 1만 1,134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유충과 성충이 집단으로 즙을 빨아 작물을 약하게 만들며, 배설물인 감로를 분비해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국제농업기술 협력으로 이탈리아에서 미국선녀벌레의 천적 ‘선녀벌레집게벌’ 600마리



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로 대량증식에 성공해 지난해 1만 4,264마리를 생산했다. 선녀벌레집게벌은 미국선녀벌레 어린 유충(1~2령)을 잡아먹거나 3~5령 유충에 기생해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한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29개 지역에 대량 증식한 선녀벌레집게벌을 방사한 결과, 기생률이 최대 30% 이상으로 나타나 미국선녀벌레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 말까지 미국선녀벌레 피해를 본 전국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천적을 활용한 미국선녀벌레 방제 현장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고향사랑기부제 · 쌀 소비촉진 적극홍보

전북농협은 11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도 인식 확산과 기부 동참 유도 및 쌀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농협 자체 ‘고향사랑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는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연원섭 한국전력 전북본부장, 송성기 전력사업처지회 노조위원장, 김상성 기획관리실지회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근길 한전 임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렛과 관내 농산물 및 식혜를 나눠주며 제도 및 쌀 소비촉진 홍보에 나섰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매일 자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특색있는 홍보와 더불어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



속 추진중이다”면서 “쌀 소비진작과 더불어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양 기관은 지난 3월 영농철 및 수확기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회랑봉사단’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가 맞춤형 및 체계적인 일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